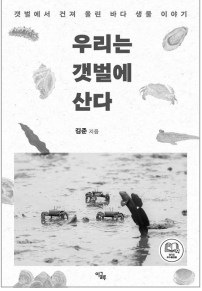


인간과 끊임없이 교감하는 갯벌 생물 백과사전

우리는 갯벌에 산다

김준 지음



별교 호동마을 어머니들은 탁월한 쟁뎡어잡이다. 쟁뎡어가 사는 2개의 Y자 구멍을 찾아 하나는 막고, 갯벌로 이어진 구멍은 발로 밟아 퇴로를 차단한 후 손을 집어 넣어 잡는다. 맨손 쟁뎡어잡이는 대대로 익혀온 솜씨다. 감태로 만든 ‘감태지’는 달콤쌉쌀한 맛이 일품이다. 거칠고 고소한 맛에 익숙한 바닷가 사람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김보다 감태김을 좋아한다.

미국에서 ‘아시아 명개’로 불리는 미더덕은 열량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아 다이어트식으로 인기다. 동서양의 가장 오래된 바다 음식 중 하나인 굴의 국내 생산량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고 겨울철 통영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지역에서는 하루 2만 2000여 명이 굴까기 작업을 한다. 책 속에 담긴 내용은 마치 ‘갯벌 생물 백과사전’을 한장씩 넘기듯 흥미롭다.

김준 전남대 학술연구교수의 새 책 ‘우리는 갯벌에 산다’는 “생물자원의 보고이며 지구상에 있는 완전성을 갖춘 마지막 생태계” 갯벌에서 건져 올린 바다 생물 32종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섬살이, 섬밥상’, ‘바닷마을 인문학’, ‘나는 갯벌의 다정한 친구가 되기로 했다’ 등 섬과 갯벌의 가치에 관한 글을 지속적으로 써 오고 있는 저자의 글은 무엇보다 현장감이 돋보인다. 수십년간 발품을 팔 결과물들은 책 속에 생생하게 담겨 있고, 특히 지금은 사라져 버린 현장들을 기록한 사진과 인터뷰 등을 통해 아카이빙 역할도 충실히 한다.

서해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다 생물들의 70%가 갯벌에서 산란하고 자란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수백년 동안 인간과 끊임없이 교감하며 관계를 맺어온 문화”다.



‘우리는 갯벌에 산다’는 갯벌에서 건져 올린 바다 생물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사진은 매생이 채취 모습.

〈이글루 제공〉

갯벌은 사시사철 밥상을 풍성하게 해주는 곡식창고 역할을 했고, 인간은 갯벌에 의존해 삶을 이어왔기에 ‘공존의 질서’를 마음에 새기며 갯벌을 살리는 일은 중요하다.

책은 우리에게 친숙하거나 낯선 갯벌 생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에 놓고 갯벌의 역사와 문화, 갯벌과 동고동락해온 어민들의 삶, 감칠맛 나는 갯벌 음식, 생태계와 기후변화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저자는 정약전의 ‘자산어보’, 서유구의 ‘난호어목지’, 김려의 ‘우해이어보’ 등 각종 문헌을 통해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생물이 살아가는 갯벌, 생생한 어민들의 삶의 모습을 써내려갔다.

‘갯벌은 삶이다’, ‘갯벌은 단단하다’ 등 모두 4부로 구성된 책에는 어촌의 곳곳을 책임져온 바지락, 갯벌을 지키는 토종의 맛 매생이, 바다의 쌀 우뚝가사리, 조선의 왕도 탐한 꽃게, 망둑어, 전복, 홍합 등 다양한 생물

의 이야기가 실렸다. 낯선 생물도 눈에 띈다. 마치 외계인을 닮은 듯한 바닷물고기 개소갱(전라도 사투리로 대강이), 고무를 떨어놓은 듯한 모양새의 연체 동물 군소, 칼국수나 파스타에도 사용되는 조개류 동죽 등이 다.

매생이국, 가리맛 조개 무침, 명게와 꼬막 비빔밥, 서해안의 별미 백합죽 등 각 글의 마지막에 실린 음식 이야기는 입맛을 다시게 한다. 격식을 갖춘 상차림도 좋지만, 현지 주민들이 늘 먹던대로 내놓은 소박한 밥상은 더욱 정감있게 다가온다.

갯벌은 “어촌의 얼굴이자 어촌의 존재 이유”라고 말하는 저자는 “다양한 생물의 공동체인 갯벌에서 인간과 갯벌 생물과 물체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갯벌 생물의 하나로서 갯벌을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글루·2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유쾌한 폭주 노년(김욱 지음)=실패한 재테크, 잃어버린 재산, 무너진 자존심 속에서도 김욱 작가는 ‘나의 삶이니까’라고 외치며 다시 펜을 들었다. 30년간 번역역과 집필로 삶을 되찾은 그는 95세까지 글을 썼고, 인생을 유쾌하게 ‘폭주’했다. 노년을 앞둔 중장년 독자에게 이 책은 늦은 시작을 위한 가장 용감한 매뉴얼이 된다.

〈페이퍼로드·1만8000원〉

▲치매에 걸린 뇌과학자(대니얼 김·테리사 H. 바커 지음, 정지인 옮김)=치매 진단을 받은 신경과 전문가가 직접 자신의 뇌를 들여다보며 10년 앞선 싸움을 시작한다. 저자는 뇌 건강의 ‘결정적 시기’에 적극적인 생활 습관 변화로 병의 진행을 늦췄고, 이후에도 연구와 글쓰기를 멈추지 않는다. 공포 너머의 낙관, 상실 이후의 주체성을 향한 걸음은 치매를 겪는 이들과 가족 모두에게 위로가 건넨다.

〈더퀘스트·1만9500원〉

▲조지 오웰 뒤에서(애나 펀더 지음, 서제인 옮김)=‘동물농장’과 ‘1984’의 그림자에 가려진 한 여인의 이름, 아일린 오쇼네시 블레이어. 오웰의 첫 번째 아내였던 그녀는 디스토피아 소설을 먼저 구상하고, ‘동물농장’의 편집과 창작에 깊이 관여한 동료이자 동지였다. 책은 오웰의 삶과 문



학에 결정적 기여를 했음에도 사라진 한 여성을 복원함과 동시에 남성 작가 중심 서사의 공백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생각의힘·2만4000원〉

▲대한민국 국부펀드가 만난 자본의 설계자들(한영석 지음)=상장과 쇠퇴를 반복하는 기업 생애주기 속에서 ‘투자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펠-베네치안-버거 등 변화에 성공한 사례부터 홀플러스처럼 좌초한 실패까지 총 20개 사례를 분석하며, 장기 자본이 경영을 어떻게 혁신하는지를 풀어낸다.

〈에프엔미디어·2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시인에게서 배워라(이민호 지음)=김명순, 정지용, 김기림, 이상, 이운악, 오장환. 교과서 속에 머물던 시인들을 교과서 밖으로 불러낸다. 저자는 이들의 삶과 시를 통해 청소년에게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선물하고자 한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 시인들의 ‘또 다른 목소리’는 진정한 행복의 방향을 일깨우는 안내자가 되어준다.

〈북치는소년·1만5000원〉

▲나는 오늘도 감정식당에 가요(김현태 지음, 오숙진 그림)=감정을 요리로 표현하는 상상력 가득한 식당 이야기. 기쁨은 딸기 컵케이크, 슬픔은 단호박수프, 분노는 불꽃 떡볶이... 매일 다른 감정을 느끼는

미미는 감정식당에서 여러 음식을 먹으며 위로를 받고, 스스로 다스리는 힘을 키운다. 먹는 행위를 통해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더 잘 들여다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린북·1만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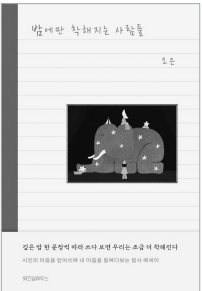
▲73일의 비밀(문부일 지음)=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는 소년 용남이 고종의 밀명을 받은 헤이그 특사단과 얽히며 펼쳐지는 73일간의 비밀 여정을 그린 역사 픽션. 일제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세계를 향해 조선의 사정을 알리고자 했던 이준, 이상설, 이위중 열사의 사투를 소년의 시선을 통해 그려낸다. 독립운동가들의 용기와 헌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한다.

〈서유재·1만4000원〉

열대야에 잠 못드는 밤...잔잔한 위로의 말이 다가온다

밤에만 착해지는 사람들

오은 지음



감성적인 에세이를 읽고 싶을 때가 있다. 무더위, 폭염, 폭우가 행위를 떨치는 요즘 적잖이 심란하다. 이럴 때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을 응시할 수 있는 글을 읽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에세이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문학 장르다.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때는 점차 무거운 생각과 사유로 전이되기도 한다.

오은 시인의 글은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문장들이 인상적이다. 결코 가볍지 않다는 의미다. 가볍지 않으면서도 읽는 맛을 주는 걸 보면 문장이 지닌 힘이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다.

최근 발간된 오은 시인의 에세이 ‘밤에만 착해지는 사람들’은 제목이 암시하듯 밤의 감성이 드러워져 있다. 모두 24편의 감성적인 글도 좋지만 문장을 직접 써볼 수 있게 구성을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글은 지난 2020년 겨울부터 2021년 여름까지 쓴 것들이다. KBS 클래식FM ‘당신의 밤과 음악’이 모티브가 됐다. 라디오에서 시인의 마공개 에세이를 들을 수 있는 코너 ‘한밤중에 찾는 용언’에 실릴 에세이를 썼다.

오 시인은 이력부터 이색적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지난 2002년 ‘현대시’를 통해 등단했으며 시집 ‘호텔 타협의 돼지들’,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등과 산문집 ‘너는 시방 위험한 로봇이다’, ‘너랑 나랑 노랑’ 등 산문집을 펴냈다.

작가는 이번 책에서 ‘밤’은 떠오르는 시간이라고 한다. 그리운 얼굴을 비롯해 스쳐 지나간 말, 잊은 줄 알

았던 오래된 감정이 나도 모르게 순간 밀려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소재목부터 인상적이다.

‘속삭이다’, ‘흐르다’, ‘그립다’, ‘깊다’, ‘기울다’, ‘두근거리다’, ‘흐느끼다’ 등은 감성이 물씬 배어나오는 말들이다. 환기되는 정서는 잔잔함과 여운, 몽클함 등이다.

저자는 ‘흐르다’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귀한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소중한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이 라면 늘 그리움을 간직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 감정은 흐르는 것이지요.”

직접 손으로 쓸 수 있게 구성된 구절들은 특히 마음에 남는다. 책의 서체와 다른 손글씨가 주는 감성은 시인의 마음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해준다.

잠이 오지 않는 여름 밤, 일상에 지치거나, 날씨가 심란해졌다면 오은 시인의 문장은 잔잔한 위로의 말로 다가올 것이다. 친구인 유희경 시인의 ‘친구의 말’을 읽는 맛도 덩이다.

〈위즈덤하우스·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 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 든 순 간 을 더 건 강 하 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